

국어 영역

▣ 화법 / 작문

1. 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 ④

학생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과 같은 발표의 중심 내용을 ‘뷔페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먹는 방법’, ‘편의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빵과 우유를 사 먹는 방법’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① 학생은 발표 중간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사례를 통해 분석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편의점의 사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세 개째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뷔페에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와 같이 학생이 청중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대목은 있지만, 학생이 청중들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발표의 앞부분에서는 청중들이 공감할 만한 구체적인 경험이 제시될 뿐, 발표할 내용의 순서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2.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②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란 여러 상품이 있을 때 각 상품의 1원어치 한계 효용이 똑같으면 한 상품을 덜 소비하는 대신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총 효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2가지 이상의 상품을 소비할 때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료 1>의 경우 ‘비빔 라면’이라는 단일 상품의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과 총 효용 곡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 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번 더 이용할 때마다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자료 1>의 한계 효용 곡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자료 2>를 통해 빵 또는 우유의 소비가 늘어나면 그 한계 효용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자료 3>을 보면 우유의 소비가 1, 2, 3개일 때 총 효용은 2000, 3800, 5400으로, 우유 한 개를 더 소비할 때마다 생기는 만족도 즉 한계 효용은 2000, 1800, 1600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란 주어진 소득으로 여러 상품을 소비할 때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자료 3>은 주어진 재화인 8000원을 사용하여 빵과 우유를 먹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반응 분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청자 1’의 발언에서는 발표자가 편향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청자 2’는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측면을 발표자가 간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발표의 근거가 편향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 ① ‘청자 1’은 ‘하지만 발표 주제를 ~ 늦은 점은 아쉬웠어.’에서 발표자가 활용한 내용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청자 2’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개인마다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발표자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청자 3’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만약 사용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이라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밝히고 있다.

⑤ ‘청자 2’는 ‘초밥 외의 음식에서 얻는 한계 효용이 절대적으로 낮다면’이라는 가정을, ‘청자 3’은 ‘만약 사용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발표 내용에 반응하고 있다.

4. 말하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 ②

‘찬우’는 ‘기아 문제는 왜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토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토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기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언급한 서영의 발언이 기아 문제의 발생 이유에 대해 말해야 하는 토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토의 흐름에 맞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 서영과 하운의 발언을 들은 후, 이를 정리(㉢)하였다.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거나, 토의 참여자들이 토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다.

5.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⑤

[B]에서 ‘하운’은 사람들에게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서영’의 제안에 동의한 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① [A]에서 ‘하운’이 말한 ‘과연 그럴까?’는 ‘서영’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서영’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A]에서 ‘하운’이 ‘서영’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서영’의 의견이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 ③ [A]에서 ‘하운’은 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서영’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을 뿐, ‘서영’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④ [B]에서 ‘하운’이 ‘서영’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서영’의 의견을 재진술하며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6.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 ⑤

(나)의 3문단에서 ‘서영’은 기아 문제 해결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기아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3문단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① 1문단에서 ‘서영’은 책을 읽은 후 기아 문제의 책임이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토의를 통해 기아 현상의 더 큰 원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이기심과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서영’은 ‘그렇다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문단을 시작한 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서영’은 사람들에게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자신의 의견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하운’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④ 3문단에서 ‘서영’은 토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아 문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이 모여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7.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공적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대기 전력으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두 자료에서는 한 사람의 힘은 작아 보이더라도 이러한 힘들이 모이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어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①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은 ㉠을 통해 유추할 수는 있으나 ㉠과는 맞지 않는다.
- ②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은 ㉡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으나 ㉠과는 맞지 않는다.
- ③ ㉡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점과 대기 전력을 줄이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해당 기구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은 ㉡와 관련이 없으며, ㉠과도 관련이 없다.
- 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과 관련이 없다.

8. 작문 상황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 ④

(나)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행 평가의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모둠별 평가의 문제점, 평가 횟수와 실시 시기 관련 문제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9.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에서는 33%의 학생이 수행 평가의 횟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불만족 이유로 꼽고 있어 ㉠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평가 횟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지만 ㉡에서는 평가 횟수에 대한 언급은 없이 모둠별 수행 평가가 어렵다는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를 활용하여 평가 횟수가 많아 학생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부적절하다.

- ① ㉡에서는 현행 수행 평가 운영 방법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② ㉠에서는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17%)이 현행 수행 평가 운영 방법에 대한 불만족의 한 이유로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현행 수행 평가에 대한 부담감의 원인으로 ‘모둠별 평가, 평가 횟수

와 실시 시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도 학생들이 수행 평가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㉔에서 학생은 모듈별 수행 평가에는 모임 약속, 준비 시간, 모듈원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를 활용해, 모듈별 평가에서 협업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 ④ ㉕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행 평가에 대해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㉔에서는 모듈별 수행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현행 수행 평가 방식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10. 수정 내용을 바탕으로 한 퇴고 내용 추론 [정답] ⑤

수정되기 전 (나)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수행 평가의 의의,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 수행 평가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 촉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수정된 것을 보면 수행 평가의 의의, 현행 수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 관련 내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은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과 관련된 내용(㉑)을 삭제하고, 현행 수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㉒)을 추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11.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의 파악 [정답] ①

- ①은 체언 '고기'를 수식하는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㉑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내 친구'는 '민우'를 꾸미고 있지만 관형절이 아니라 관형구이다.
- ② ㉑의 '맛이 좋았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고, ㉒의 '운동을 좋아하는'은 '철수'를 꾸미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 ③ ㉑의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안긴문장에는 '고기'라는 목적이 생략되어 있고, ㉒의 '고등학생인'이라는 안긴문장에는 '나'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④ ㉑의 '민우가 왔음'과 ㉒의 '내가 읽기'는 모두 명사절이다.
- ⑤ ㉑의 '맘이 나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고, ㉒의 '내가 읽기에는'은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12.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 ④

- ㉑의 '국물'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인 'ㄱ'이 뒤에 오는 자음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궁물]로 발음된다. 하지만 ㉒의 '홀이불'의 경우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인 'ㅍ'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 후, 뒤에 오는 자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혼니불]로 발음된다. 따라서 ㉑은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 ① ㉑의 '여닫이'는 '여닫다'의 어간인 '여닫-'과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여닫이]로 발음된다. 이는 'ㄷ'이 단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ㅌ'으로 소리가 바뀐 경우이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② ㉒의 '달힌'은 '달다'의 어간 '달-'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달히다'의 활용형으로, 'ㄷ'이 접미사 '-히-'와 만나 [치]로 발음되는 경우이

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③ ㉑의 '붙여'는 '붙이다'의 어간 '붙이-'와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로, 'ㅌ'이 이중 모음 'ㅑ'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ㅑ'으로 소리가 바뀐 경우이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⑤ ㉒의 '난로'는 음절 끝에 오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날로]로 발음되며, ㉑의 '업무'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 'ㅂ'이 뒤에 오는 자음인 'ㄹ'의 영향을 받아 'ㄹ'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엄무]로 발음된다.

13. 국어사 자료의 이해 [정답] ⑤

(가)의 '꽃'에 쓰인 'ㅈ'과 (나)의 '꽃'에 쓰인 'ㅊ'은 모두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자음의 조음 위치는 같다.

- ① 중세 국어에서는 'ㄷ'과 'ㅌ'이 모두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에 해당하므로, '도쿄'와 '퍼디'의 'ㄷ'은 모두 '제'의 'ㅈ'과 조음 위치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둥글'과 '몽흥'에서는 각각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인 'ㅇ'과 'ㅎ'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라진 음운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뽕'은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두 자음인 'ㅂ'과 'ㄷ'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세 국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④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이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센입 천장과 혀바닥 사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아 나는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조호르'의 'ㅈ'과 '빗최턴'의 'ㅊ'은 경구개음에 해당한다.

14. 사전 활용 활동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㉑의 용례가 아니라 '반다01 [1] 'ㅂ'의 용례로 적절하다. ㉑의 용례로는 '막내로 집에서 귀염을 받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다.' 등을 들 수 있다.

- ① '반다 01'과 '반다 02'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서 뜻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다. 즉 동음이의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 ② '반다 02'의 예문 '소가 엉덩이를 받아서 다쳤다.'를 피동형으로 바꾸면 '소에게 엉덩이를 받혀서 다쳤다.'가 된다. 즉 '반다 02'의 피동사는 '받히다'임을 알 수 있다.
- ④ ㉑의 예문 '심사 위원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다.'를 통해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㉑에는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⑤ 문형 정보와 예문을 통해 봤을 때 ㉑은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 반면 ㉒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15.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③

'무명 만قم'의 '만قم'은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언 뒤에 쓰이고 있는 조사이므로 제41항을 따라 앞말인 '무명'과 붙여 '무명만قم'으로 써야 한다.

- ① '뽕'이 체언 뒤에서 조사로 쓰였으므로 '실력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조사는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쓰므로 '저렇게까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수 관형사와 띄어 써야 하므로 '두 권'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으므로 '100원'과 '100 원'을 모두 쓸 수 있다.

독서 / 문학

[16~19] (인문)

「칸트의 도덕 법칙」
 이 글은 칸트가 윤리 형이상학을 통해 절대성과 보편성을 지닌 도덕 법칙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과 그 준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칸트는 인간의 경험이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순수 철학 가운데 형이상학을 윤리학에 적용한 윤리 형이상학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윤리학에서 배제한다. 또한 그는 도덕 법칙의 작용으로 행해진 윤리적 실천만이 완전히 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의지에 의해 인간이 윤리적 실천을 한다고 여겼다.

16. 내용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①

1문단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도덕 법칙 정립에 방해가 된다는 칸트의 생각을 밝히고, 2문단에서는 칸트가 종래의 철학 체계를 분석하면서 윤리학을 경험 철학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윤리 형이상학을 통해 경험 철학인 윤리학에서 인간의 경험을 배제하여, 도덕 법칙을 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4, 5문단에서는 칸트가 도덕성이 유일한 도덕 법칙이라고 여겼다는 점과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내재한 선의지에 의해 준수된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칸트가 도덕 법칙을 정립한 과정과 그 준수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②

4문단의 '도덕 법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인 인간학으로부터 그 원리를 가져올 수 없고'에 따르면 칸트가 인간학으로부터 그 원리를 가져와서 도덕 법칙을 정립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1문단의 '인간의 경험 영역을 초월한 형이상학을 통해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를 통해 칸트가 도덕 법칙을 정립하기 위해 윤리학에서 인간의 경험을 분리하려고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4문단의 '도덕 법칙은 ~ 인간에게 선형적 법칙을 부여한다.'를 통해 칸트는 도덕 법칙이 인간의 행위를 선형적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도덕 법칙의 작용으로 행해진 인간의 모든 윤리적 실천만이 완전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를 통해 칸트가 도덕 법칙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윤리적 실천은 선하다고 여겼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1문단의 '도덕 법칙은 필연성과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데'를 통해 칸트는 도덕 법칙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타당한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18. 대상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 [정답] ②

㉑은 객체를 다루는 경험 철학이고, ㉒은 형식 및 사고의 보편적 규칙만을 다루는 형식 철학이다. 따라서 ㉑과 달리 ㉒은 사고의 보편적 규칙만을 다룬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①, ③ 2문단의 '객체를 인식의 질료로 삼는 물리학과 윤리학은 경험을 수반하는 경험 철학이므로'를 통해 ㉑과 ㉒은 모두 객체를 다룬다는 것과 순수 철학이 아니라 경험 철학임을 알 수 있다.

④, ⑤ ㉠과 ㉡은 객체를 인식의 질료로 다루는 경험 철학이지만 ㉢은 경험적 부분을 배제한 형식 철학이다.

19.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③

[가]에서 칸트는 선의지를 ‘결과나 수단으로서의 선이 아닌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선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B는 선의지가 발동하여 적병을 치료했고 이는 곧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적병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이 선한 행위가 다르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 ① [가]를 보면 인간은 선의지뿐만 아니라 ‘자유 의지’ 역시 가지고 있다. <보기>의 A가 적병을 구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은 이성과 자유 의지가 불일치하여 충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가]를 보면 ‘선의지는 도덕 법칙의 실천이 이성적 존재자의 의무라고 납득하는 데서 생긴다. 이를 보면 B는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 이성적 존재자의 의무라고 납득했기 때문에 적병을 주저 없이 치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가]를 보면 ‘도덕 법칙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의 결과가 선한 것이라면’ 이는 완전히 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행위를 보고 따라한 A의 행위가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A의 행위는 도덕 법칙이 작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⑤ [가]를 보면 ‘선의 개념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인간은 자유 의지도 가지고 있다. 즉 A와 B는 모두 이성적 존재자로서 선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고, 자유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 (현대 시)

(가) 김기림, 「태양의 풍속」
3연으로 이루어진 산문시이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낡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대상으로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희구한다. 1연에서 화자는 태양을 어머니, 고향, 사랑, 희망 등으로 부르면서 태양이 어둠을 없애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2연도 ‘태양아’라는 호칭으로 시작되는데 ‘너는 나의 병실을 어둠들의 아침을 다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라고 하여, 태양이 아침을 데리고 밝은 모습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다. 3연에서는 자신의 시가 태양의 밝은 풍속을 따르게 되기를 원하면서 태양을 기다린다.

(나) 김광균, 「와사들」
현대 물질문명의 무질서에 대한 고민을 그린 시이다. 방향을 잃은 현대인의 고독한 모습과 도시적 삶에서 느끼는 비애감,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은 현대인의 상실감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은 아무 것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야만 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의 신호를 형상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떠남의 심상에는 도시적 상황 속에서의 현대인의 불안 의식이 나타나 있다.

(다) 「한국 현대 시에 나타난 우울」
‘우울’은 모더니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코드이며, 대다수의 문화적 산물들의 심정적 배경을 구성하는 문화 해석학적 열쇠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 꼽히는 두 시인 김기림과 김광균의 시를 ‘우울’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다.

20.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에서는 ‘활아버려라’, ‘푸른 잔디밭’, ‘흰 방천’, ‘어두운 병실’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에서는 ‘차단-한 등불’, ‘찬란한 야경’,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아우성 소리’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① (가)와 (나)에는 시간적 배경만 드러나 있을 뿐, 계절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에는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점만 드러나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가)에서는 ‘활아버려라’, ‘흔들어 주어라’, ‘찾아오너라’ 등의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2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 ③

(나)의 화자는 ‘등불’을 ‘슬픈 신호’라고 비유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에서 청자인 ‘태양’의 풍속을 사납다고 표현한 것이 ‘태양’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에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양’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제시되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 ② [A]에서 애도는 사랑하는 대상 또는 지향점의 상실을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활아버려라.’에 담긴 부정적인 상황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통해 애도가 표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의 ‘입을 다물다’라는 행위가 대상이 부재하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이렇게 본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에서는 ‘눈물겹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슬픔의 감정을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나)의 ‘등불’은 화자에게 일종의 ‘내비게이션’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화자는 현재 그 신호의 방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이는 실천적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적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의 화자가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라고 표현한 까닭은 ‘태양’이라는 염원의 대상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의 현 상황을 ‘어두운 병실’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두운 병실’을 환하게 밝혀 주는 존재인 ‘태양’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와 같은 장면 묘사를 작품 곳곳에서 제시하여 불안과 동요에서 비롯된 공허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다)에서 우울은 안정적인 정서 상태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의 1연과 5연에서 반복되고 있는 ‘등불’의 ‘슬픈’ 속성을 통해 화자의 슬픔이 강조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23~26]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적성의전」
이 작품은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한 국문 소설로서, 소설로 형성화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 사상이 강조되었다. 제시된 부분은 안평국의 둘째 왕자인 성의가 모후의 병을 고쳐 드리고자 천신만고 끝에 서역에서 일영주를 구하지만 이를 시기한 형 항의의 공격을 받아 눈이 멀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형제간의 갈등과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성의가 항의를 만나는 장면에서 제시된 ‘슬프다! 사람의 운수는 ~ 성의가 어찌 알리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항의에 의해 성의가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4.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④

항의는 ‘한 척 작은 배가 나는 듯이’ 다가오자 뱃사람들에게 ‘안평국 대군이 타신 배가’ 아니냐고 소리쳐 불렀지만, 곧 ‘부르고는 의심하여 주저’하였다. 따라서 ‘항의’가 ‘성의’가 작은 배에 탔다고 확신하고 소리를 쳐서 강변으로 인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동방삭은 성의가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있어 ‘존자’께서 감동하셔서 ‘약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동방삭’은 ‘성의’가 효심이 지극하여 약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존자는 성의가 ‘부모께 효도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길을 삼아 오늘에야 꼭 올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존자’는 ‘성의’가 ‘왕비’의 약을 구하기 위해 서역에 올 것임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왕비는 성의가 ‘한번 떠난 후로 생사를 알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 하였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왕비’는 ‘성의’가 여행을 떠난 후로 ‘성의’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슬퍼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성의와 항의가 만나는 장면에서 제시된 ‘세자 항의의 불측한 흥계를 성의가 어찌 알리오’라는 서술자의 말을 볼 때, ‘성의’는 ‘항의’의 흥계를 짐작하지 못하고 반가움에 배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2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항의가 서천으로 향했다가 풍파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가 약을 가지고 부왕과 모후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항의의 영웅적인 능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다.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항의는 성의가 구한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에게 해를 끼친 후 성의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 돌아온다.

- ① ‘극락’과 ‘존자’는 불교적 소재로서 작품에 나타나는 불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 ② 성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왕비의 약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는 것에서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 ③ 성의가 고국을 떠나 서역으로 가서 ‘일영주’를 구하는 과정에서 탐색담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항의는 성의가 약을 구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항의는 성의에게 약을 빼앗아 돌아온 후에 ‘불량한 마음’에서 왕과 왕비에게 성의가 약을 얻었지만 세상을 잊고 중이 되었다고 거짓을 고하고 있다.

26. 소재의 이해

정답 ①

- ㉠가 성의가 존자를 만나는 장소는 맞지만, 성의는 ㉠에서 자신의 전생의 내력을 들을 뿐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 '성의'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공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를 듣고 성의는 '한 조각 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동방삭'을 만나게 된다.
- ㉢ 동방삭은 ㉢에 성의를 태우고 '약수'에서 '순식간에 강변에' 다다라 성의와 사공들을 만나게 한다.
- ㉣ 왕비가 병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성의는 약을 구하기 위해 '안평국'을 떠나 '서역'으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된다.
- ㉤ 향의는 성의의 눈을 멀게 하고 바다에 빠트린 후에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일을 한 후에 향의는 ㉢를 이용해 군졸들을 심복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비밀을 왕과 왕비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7~32] (사회)

한순구, 「재산권과 법 제도」

이 글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소득 분배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추가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전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도가 해야 할 일도 제시하고 있다.

27.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④

- 마지막 문단에서 '권리를 침해한 이는 '침해 금지 명령' 등의 형사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형사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1문단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법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법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결정해 주어야 하고, 이때 기준이 효율성과 공정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법안 2가 강제된 상황에서 목장주가 법안대로 자신이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닌, 농장주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25만 원의 잉여가 발생하고, 그 돈을 농장주와 목장주가 서로 나누어 가진다고 하였다.
- ⑤ '물권적 보호 원칙'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면 그 권리를 교환 내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이는 형사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28. 관점에 따른 상황 이해

정답 ④

- ㉠의 관점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법안 1을 찬성할 것이고, 법안 2가 강제되더라도 협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안 1이 강제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협상 없이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협상을 하여 합의해야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협상을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안 1을 따라야 하므로 ㉠의 입장에서는 법안 1을 찬성할 것이다.
- ② 공정성을 중시하는 법안은 법안 2인데, 이를 따르게 되면 울타리를 75만 원에 쳐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 ③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잉여는 25만 원인데,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면 협상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⑤ 거래 비용이 없다면, 협상을 통해 목장주가 울타리 치는 비용을 부담하고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잉여도 둘이 나눌 수 있게 되므로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게 될 것이다.

29. 이유의 추론

정답 ②

법안 1을 강제하면, 농장주는 피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100만 원의 피해를 보는 대신 울타리를 치려고 할 것이다. 울타리를 치는 것도 자신이 치는 것이 50만 원밖에 들지 않아 가장 효율적이므로 자신이 치게 될 것이다. 반면 목장주는 피해의 책임도 없고, 자신이 울타리를 치는 것도 농장주가 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므로 어떠한 행동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안 1을 강제하는 상황에서는 농장주와 목장주의 협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30. 개념 간의 관계 파악

정답 ①

법 제도는 이해 당사자 중 한쪽에 권리를 부여하므로 기본적으로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법 제도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래 비용이 잉여보다 커서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이다. 거래 비용이 잉여보다 높아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 제도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 ② 법 제도는 거래 비용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안 미칠 수도 있다. 거래 비용이 없거나 잉여보다 적다면 법 제도에 상관없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거래 비용이 잉여보다 크면 비효율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다.
- ③ 협상이 이루어지면 법안에 상관없이 언제나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주게 된다.
- ④, ⑤ 어떠한 경우라도 법 제도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게 된다.

31.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③

마지막 문단을 보면, 법 제도가 손해 배상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할 때, 그 손해액의 결정은 국가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 배상액의 결정을 이해 당사자들의 개인적 평가를 절충하여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물권적 보호 원칙에서는 권리를 침해한 이에게 침해 금지 명령 등의 형사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법원은 중지 명령 등으로 공장을 닫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공장장에서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는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손해 배상 원칙은 이해 당사자 사이의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권리 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것이다. 위 사례에서도 주민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협상에 의한 권리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 배상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법원이 공장 폐쇄를 하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보아 공장 폐쇄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민들이 공장의 유지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가 공장 폐쇄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는 적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3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수반되다'는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라는 뜻이므로 '수반되는데'를 '커지는데'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3~37] (고전 시가·수필)

(가) 권구, 「병산육곡」

이 작품은 작가의 고향 마을인 안동의 병산리에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작가가 당쟁(黨爭)이 극심했던 시절, 벼슬길을 떠나 자신의 고향 마을인 안동의 '병산리'로 낙향(落鄕)을 한 후 창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김용준, 「계」

이 글은 화가이자 문인인 글쓴이가 독특한 관점에서 '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예술관 및 글과 그림의 소재로 '계'를 자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후, 계의 속성을 통해 인간의 속성을 풍자하고 있는데, 특히 한시를 인용하여 '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33. 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 ③

(나)에서 글쓴이는 한시를 통해 계의 속성을 인간에 적용하고 있으며, 낚시를 할 때 계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계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며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에서는 '백구', '보리밥', '두견', '무릉' 등과 같은 시어를 활용하여 자연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과 현실에 대한 미련을 간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통해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④ (나)에서는 낚시를 했던 경험이나, 친구들로부터 그림을 그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험이 특정 어구의 점층적 나열을 통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가)에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만족과 미련의 감정이, (나)에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담겨 있을 뿐, 두 작품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연민과는 관련이 없다.

34.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나)에서 글쓴이는 '정소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한 후 '환'을 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진정한 예술가로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자신이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에서 화자는 부귀를 원하지 않고, 가난을 한탄하지 않으며 인생을 한가하게 사는 것이 자신이 꿈꾸는 삶이라 말하고 있다.
- ② (가)에서 화자는 보리밥과 파, 생나물 등을 먹고 초가집을 쓴 후 창 아래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은 소박한 삶이라 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글쓴이는 '정소남'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 후, 그림이라는 것이 자연을 빌어 작가의 맑고 고결한 심경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림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가

지닌 예술관에 해당한다.

- ④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예술가답게 살아 보자는 결심을 해 왔음을 언급한 후, 물욕과 영달에서 벗어나 인생을 담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술가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였다.

35.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①

(가)에서 화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며, 달이 뜬 빈 산에서 혼자 울고 있는 ‘두견(㉡)’을 바라보며 서러운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추구하는 안분지족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은 현실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소재라 할 수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보리밥과 파, 생나물 등을 먹고 창 아래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모습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작가의 모습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7.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와 감상 정답 ⑤

(나)에서 글쓴이는 계와 관련된 시가 많지만, 무장공자(無腸公子)로서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는 시구를 통해 단장의 비애를 모르며,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사를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왕세정의 시보다 윤우당의 시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① 계들이 다니고 있는 ‘뜰’은 단순한 시적 공간일 뿐이며, ‘타족에게 짓밟힌 땅’과 대응하지 않는다.
- ②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을’은 ‘동족상쟁’의 비극과 관련이 없으며, 글쓴이의 비애감을 유발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 ③ 글쓴이는 낚시를 했던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처음에는 미끼를 물지 않다가 나중에서는 미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조리 잡히는 ‘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뜰’을 ‘계 땅’인줄 알고 마음껏 다니는 ‘계’의 모습은 ‘영리한’ 체하는 ‘계’의 모습과 관련이 없다.
- ④ ‘창자가 없는 계’가 ‘부럽’다고 말하는 것은 ‘무장공자’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의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8~42] (기술)

채반석, 「음성 인식 기계 번역」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번역도 무척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글은 음성 인식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 중 하나인 패턴 정합 방식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입력된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서 출력하는 기계 번역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음성 인식 번역의 작동 원리 및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3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④

5문단에서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전체 문맥을 파악한 다음, 문장 내에서 단어, 배열 순서, 문맥에서의 의미 차이 등을 반영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도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정확도를 높인 기술임을 알 수 있다.

- ① 7문단에서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이 통계 기반 기

계 번역보다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은 ‘단어나 구문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통계적 모델을 통해 실현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현재는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이 주류’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⑤ 7문단에서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통계적 기계 번역보다 그 시스템이 더 단순한 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39. 구체적 자료에 적용 정답 ②

(나)는 동적 정합 방식이다. 동적 정합 방식은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정점이 같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발음 시간이 다를 때 전체 발음 시간과 정점 부분의 시간을 모두 일치시켜 비교하는 방식이다.

- ① (가)는 선형 정합 방식이다. 선형 정합 방식은 입력 패턴의 발음 ‘시간’과 기준 패턴의 발음 ‘시간’을 일치시켜 비교하는 방식이다.
- ③ (나)는 동적 정합 방식이다. 이는 발음한 전체 ‘시간’을 같게 설정해 비교하는 선형 정합 방식으로도 정확히 비교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 ④ 1문단에서 ‘인식 대상 어휘가 적을 경우에 ~ 패턴 정합 방식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선형 정합 방식과 동적 정합 방식은 모두 패턴 정합 방식에 해당한다.
- ⑤ 1문단에서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 종종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40.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 ⑤

4문단에서 ‘계층적 구 기반 방식’에서는 관련이 있는 구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종합해서 표현함으로써 더 많은 대역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play the piano’와 ‘play the violin’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들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종합해서 표현할 것이다.

- ① 4문단에서 한국어-영어처럼 어순이 다른 경우에는 어순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한국어-일어는 어순이 같기 때문에 어순을 바꿀 필요가 없다.
- ② 초창기의 통계 기반 기계 번역에서는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어 번역 결과를 제시했지만 ‘계층적 구 기반 방식’은 구 형식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어인 ‘나는’과 서술어부인 ‘밥을 먹었다’로 나누어 번역할 것이다.
- ③ ‘계층적 구 기반 방식’은 ‘사과를 먹다’, ‘바나나를 먹다’와 같이 관련성이 있는 표현들을 ‘X를 먹다’와 같이 종합하여 번역한다. 그런데 ‘take’는 우리말로 ‘안다’, ‘사다’와 같이 관련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각기 치환될 수 있으므로 이를 ‘take X’의 형태로 번역하기는 어렵다.
- ④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만 있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은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 방식’이다.

41. 핵심 정보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④

단어나 구 단위로 나는 뒤 번역하는 방식은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이 아닌, 통계 기반 기계 번역에 해당한다.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에서는 문장 단위로 번역이 이루어진다.

- ① [A]에서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문장 내에서 배열 순서를 고려하여 번역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②, ⑤ [A]에서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해당 단어와 관계있는 여러 단어들(예: 썼다, 쓸 것이다, 쓰고 싶다)을 함께 고려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③ [A]에서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해당 단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단어들(예: 모자(를), 가발(을))을 함께 고려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4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②

③에 쓰인 ‘거치다’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③, ④, ⑤에서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② ‘그의 눈앞에 하얀 평원이 거칠 것 없이 펼쳐져 있었다.’에서 ‘거치다’는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3~45] (현대 소설)

박완서, 「아저씨의 훈장」
이 작품은 6·25 전쟁 상황에서 장손을 증시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아들이 아닌 장조카를 선택한 한 인물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서술자인 ‘나’는 전통적 가치관에 집착하여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난하고 그것을 자랑삼아 사는 아저씨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아저씨가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의 이름을 쥐어짜듯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르는 것을 보며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43.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②

‘나’는 아저씨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아저씨로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기를 오랫동안 바랐으나 막상 듣고 보니 쾌감보다는 허망감에 소스라쳤다고 하였으므로 ②의 내용은 적절하다.

44. 핵심 제재의 이해 정답 ⑤

아저씨는 피난길에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은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성취감을 표현하면서 당당하였다. 그러나 가끔 그 도덕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는 내비친 적이 있다고 하였다.

- ① 아저씨가 자물쇠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당당했던 것은 장손을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아저씨는 과거에 자물쇠 장수를 하더라도 훈장을 달고 다니는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초라한 자물쇠 장수로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훈장은 아저씨의 현재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④ 아저씨는 자물쇠를 금빛으로 닦아 가슴에 달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 마치 훈장을 달고 다니는 장군처럼 보인 것이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나’에게 과거 ‘너우네 아저씨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아저씨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특히나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게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자책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표야, 아아, 은표야’는 아들에 대한 너우네 아저씨의 그리움이 담긴 표현이다.
- ③ 아저씨가 ‘아들을 뿌리’쳤던 것은 장손을 키우는 것이 당시에 중요한 도덕적 관념이었기 때문이며, 아저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다.
- ④ 아저씨는 아들 대신 장손을 데리고 피난 나온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그 도덕적 가치를 의심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사실은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나’에게 결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